

# “부동층·숨은표에 달렸다” 총공세

### 서울시장 보궐선거 D-6...朴·羅 초박빙 접전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못해 여론몰이 총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부동층과 '숨은 표'(여론조사와 실제투표율 간의 격차)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KBS, MBC, SBS 방송 3사와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TNS코리아의 공동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박 후보는 40.5%의 지지율로 나 후보(38.2%)에 오차 범위 내인 2.3%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부동층은 무려 21%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10% 미만, 많아야 10%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부동층 흡수 노력과 함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세 대결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나 후보와 박 후보는 도덕성 검증 문제를 둘러싼 낯선 신경전 속에 대립각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양 진영은 선거법상 투표일전 6일, 즉 20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이날 하루 여론몰이에 더욱 총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은 병역 및 학력의혹, 대기업 후원금 문제 등 박 후보에 대한

전방위 검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박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부동층이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라 검증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이에 맞서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나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본격 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나 후보의 재산목록을 보면 2개릿 컷 다이아몬드 반지의 시가를 7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보석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최상급 2개릿 다이아몬드는 최고 8000만원~1억원 이고, 일반 2개릿 다이아몬드의 평균 시가는 약 3000만원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숨은 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도 관심사다. 숨은 표는 대부분 집권 여당에 부정적 성향

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범야권의 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숨은 표는 그 위력을 나타냈다.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15%포인트 가장 앞섰지만, 숨은 표가 한명씩 후보에게 집중되면서 0.6%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승리했다. 또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도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던 최문순 후보가 결국 숨은 표의 결집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범야권의 박 후보 측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적어도 5%~7%대의 숨은 표가 결집되면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이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야권 박인연 서울시장후보와 한명숙 전 총리가 19일 여의도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지지하는 시민과 기호 10번을 표시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박근혜 맞대결 최대관심사

### ■서울시장 보선 3대 관전포인트

### 한나라당 ‘네거티브 공세’ 보수층 결집 효과 박·나 후보 승패 갈릴길 ‘투표율 45%’ 주목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박원순 단일후보가 박빙의 혼전을 거듭하자 막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박 후보 지원 여부를 비롯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보수층 표 결집 여부 등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선거 당일 투표율과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두 후보 진영 간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안철수와 박근혜 대결 이뤄지나=안 원장의 지원 여부는 이번 선거 막판 최대의 관심사다. 나 후보에 상당히 앞섰던 박 후보를 턱 밑까지 추격하거나 역전한 것으로 기대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안 원장의 선거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

다. 당장 박 후보는 19일 “또다시(지원을) 부탁드리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계기로 보수층이 결집할지도 관심거리다. 박 전 대표는 이날까지 7일의 선거운동 기간 무려 4일을 서울시 장 선거 지원에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범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기동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투표율 45%’ 승패 분기점? =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승패의 분기점으로 ‘투표율 45%’를 주목한다. 투표율 45% 미만이면 나 후보에게, 45%를 넘어서면 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투표율이 45~50%일 경우 극히 미세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선관위가 이날 초 서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 의향 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은 65%로 나타났다.

통상 실제 투표율이 이보다 20%포인트 정도 낮게 나온 관례를 적용하면 45% 안팎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그만큼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네거티브 격화-효과는=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선거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에 대한 병역·학력·재산 의혹을 잇따라 터뜨려 보수층 결집 효과를 끌어내면서 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박 후보 측은 애초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 맞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관세 변화에 따라 전략을 수정했다. 박 후보가 최근 “한나라당이 병역비리 분당이고 투기, 위장전입, 탈세, 무패로 얼룩져 있는 정당”이라고 꾸짖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 검찰 고발

### 임태희 실장 등 5명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책임규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

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청와대에 이시형씨가 시가보다 저가 구입한 이유, 국가재산으로 지원한 의혹에 대한 해명, 취득세 신고 납부 내역, 이시형씨가 차입했다는 12억원에 대한 이

자를 본인이 부담한 증빙자료와 친척들의 인적사항, 대통령실이 경호 시설용 부지구입을 위해 예산(40억)보다 더 지출한 2억8000만원의 전용 근거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요가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상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민중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도가니 관련법’ 본격 심의

### 법사위 24일 첫 논의...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국회가 다음주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도가니 관련법’을 본격 심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여야 간사협의의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가니’ 관련법안을 오는 24일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에는 현재 18대 국회에서의 의

원입법으로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여 건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 가운데 영화 ‘도가니’의 상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자랑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때 관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 배제를 담은 법안을 우선 검

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일반 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고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각각에 대해 가장 처벌하는 내용 등이다.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력을 인정, 장애인 대상 사건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라 ‘항거불능’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등으로 고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의 도가니 관련법 심의는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한선교 의원 서면 조사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선교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초 한 의원에 게 서면질의를 보냈고 일주일 뒤 답을 받았다”며 “수사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면질의를 통해 녹취록 입수 경우, 녹취록 공개 전후 행적, KBS

기자와의 접촉 등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의원에 대해 출석을 재차 요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월2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제기된 도청 의혹과 관련해 도청을 한 것으로 지목된 KBS 정치부 기자와 한 의원들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KBS 기자와 한 의원 보좌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한 의원은 경찰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재자 신고서 대리 작성 전남선관위 첫 고발 조치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되는 화순군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해 작성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직장에서 친·인척 7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수완지구 상가 불협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이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수익성상가 •안전한재난증식  
•노후보장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선정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상회실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